

은혜샘물학교 소식지 2019년 가을  **마을이 된 학교**

2019 가을겨울호
 샘물이야기
 발행처 샘물중고등학교

SMCA
 SAEMMUL STORY

가을컨퍼런스 | 샘물이모저모 | 예비중등 이야기 | 샘물의 연구와 교사교육 | 인터뷰 | 졸업생 이야기 | 기도제목



다시보는 봄여름 학기 | 아빠랑 캠프 | 마을프로젝트 | 부모님들 이야기 | 봄여름학기 은샘유치원은 | 세계를 품는 아이들, 세품아



인사말 Message

샘물학교의 지난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 2009년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었던 샘물중학교 개교 때에 비하면 두 개동의 교육관 및 주양도서관, 체육관, 풋살장 등 샘물학교의 교육환경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10여년간 다져온 기독교 교육과정, 헌신된 교사와 학부모, 교회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샘물차오름캠페인 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더욱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213명의 샘물 졸업생,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가는 유치원부터 고3에 이르는 500여명의 샘물인들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는 신념으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했던 네델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 언론인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우리의 샘물인들이 세상 문화를 변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그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소망이 아니라 다음세대 선교사로 기독교 학교 사역에 몸 담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 모두의 사명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샘물의 오늘이 있기까지 긴 호흡으로 이 일에 동역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많은 동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차올라, 넘쳐흘러 세상을 적시는 샘물을 함께 그리고, 바라고, 계속해서 동역해 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총괄이사 **권문영** 드림

나의 진로, 주어진 몫을 찾기 위한 2019 샘물 가을컨퍼런스

매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3일간 진행되는 가을컨퍼런스는 모든 샘물인들이 자신의 은사와 적성을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마음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올해도 예비중등부터 11학년까지 샘물인들이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직업 현장을 체험하며 특별히 우리가 섬길 대상과 분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학과설명회를 해준 20명의 선배들과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신 28명의 멘토분들 덕분에 더욱 풍성한 진로 컨퍼런스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두보람 목사님 외에 올해는 두 분의 재학생, 졸업생 아버님이 강사로 나서 소명과 삶에 대한 자신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들의 학과설명회와 멘토만남, 잡월드 탐방(예비중등과 7학년), DISC검사와 내가 섬길 대상을 찾고 나누는 공동체 활동, 그리고 부르심을 위한 기도회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던 2019 가을컨퍼런스 현장입니다.



멘토들이 본 샘물인

- 샘물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너무 멀어서 오가는 길에 지쳤을텐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대표 고은경 멘토**
- 샘물학교 학생들 완전 감동이었어요. 다녀간 후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학생들의 태도와 인성에 대해 공유하였답니다. **장진아 하트하트재단 사무총장**
- 관심 분야인 심리, 상담 분야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준비한 질문 역시 구체적인 생각을 통해 나온 것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잘 경청했고 자신들의 의사를 잘 표현했습니다. 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분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장동진 교수**

샘물, 몫을 찾아가다 '마음의 힘, 공동체의 힘이 함께 자라간다'
2019.8. 21~23



샘물의 이모저모 2019 여름과 가을의 샘물 짬막 소식입니다

올려라, 샘물 역사골든벨

6월20일(목) 제 1회 샘물 역사골든벨이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사회과 선생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샘물 역사골든벨은 총 73명이 참여한 예선을 거쳐 예비중등부터 12학년까지 40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최후의 1인은 7기 김다운 학생! 33번 문항에서 고배를 마셔 선생님들이 준비한 40문항을 다 풀지 못했지만 골든벨 타종은 제 2회 대회 후배들에게 기대해보겠습니다. **H**

Creativity! 2019 WCA 여름캠프



샘물의 자매학교인 미국 기독교학교 WCA와 함께 하는 WCA 여름캠프가 올해도 7월15일(월)부터 7월19일(금)까지 샘물중고등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Creativity! 68명의 샘물 학생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WCA 교사 4명과 WCA 11, 12학년 학생 5명과 함께, Creative Writing, Creative Art, Creative Science 과목과 Activity Time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샘물 곳곳에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H**

도전! Spelling Bee

8월26일(월), 8월30일(금) 양일간 영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Spelling Bee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컴퓨터 화

면을 보며 스펠링을 쓰는 writing test 방식과 무대에서 출제자가 내는 문제의 철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oral test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 9팀, 중학교 10팀이 참여한 가운데 샘물 모든 학생들이 친구들을 함께 응원하고 보너스 문제에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

라이베리아 기독교학교 돕기 베품시장

9월10일(화), 예비중등(초6) 학생들과 통합지원 학생들 16명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기독교학교를 돕는 베품시장을 열었습니다. 각종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물건들을 기증받아 샘물 선배들과 교사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날 베품시장 수익금 14만원을 포함, 지난 봄부터 예비중등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판매 등을 통해 모든 기부금 30만원이 라이베리아 기독교학교인 Grace School로 전달됩니다. **H**

선배와 후배가 “샘물, 함께 뛰다”



학년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풀뿌리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기획한 스포츠대회! “샘물, 함께 뛰다”가 9월17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24일(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국토순례 때 만났던 11학년부터 예비중등 학생들이 다시 모여 총 7개 조로 나뉘어 남학생들은 축구, 여학생들은 피구, 그리고 번외로 단체 줄넘기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체 안에서 하나되는 샘물인, 스포츠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샘물인을 위해 풀뿌리 학생자치회가 오랫동안 기획, 준비하고 현장 스텝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준 풀뿌리 학생들, 고맙습니다~ **H**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나요?”



매주 함께 드리는 샘물의 공동체예배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형식을 달리하기도 하며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9월30일(월) 진행된 공동체예배는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길찾기)>로 4가지 주제, 4군데 장소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제 삶은 왜 그대로죠?”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는 진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제로 자신의 고민에 맞춰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고 각각 위와 동일한 고민을 하셨던 선생님 두 분이 나와 그 시간을 지나온 과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고백에서 나의 신앙고백이 되기까지 샘물인들의 복상과 기도 에 은혜가 더하길 기도합니다. **H**

부모, 자녀, 교사가 함께 12학년 기도회

9월19일(목) 연합예배가 끝난 밤

늦은 시간, 12학년 학부모 7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12학년 학생, 교사들이 수능 전 마지막 전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연합예배 후 12학년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자녀들을 가운데 모으고 모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학생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벽기도회로 진행하며 응원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학년 수시전형 지원과 모의면접



지난 9월6일(금)부터 9월11일(수)은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교무실은 생활기록부, 학교활동보고서, 자기소개서, 학교 소개자료, 기타첨부서류 준비와 발송으로 분주했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학생수가 급격히 늘면서 서류 준비와 자기소개서 준비에 많은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모의면접이 진행중입니다. 매주 화, 금요일 도서관에서 모의면접이 진행되었고 수능 이후, 대안학교 전형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지원 학생들의 본격적인 모의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H**

미래를 준비하는 여름방학 교사 연수

8월12일(월)부터 8월14일(수)까지 샘물 교사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사 연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틀에 걸쳐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교육 전문가 박병기 교수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미래교육리더십 전공 담당)을 초빙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역량과 샘물의

교육과정을 논의했습니다. **H**

4차산업혁명 대비, 샘물 TFT모임

9월4일(수) 오후5시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샘물 TFT가 13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학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TFT는 매월 한 차례 만나 학교의 핵심가치 아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역량들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역량들이 학년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길러질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신임교사들의 행복한 수업성찰

가을학기 첫 신행성이 9월5일(목) 오후 6시 열렸습니다. 신행성(신임 교사들의 행복한 수업성찰)은 샘물 1년차 신임교사들을 위해 연 5회 진행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10명의 신임교사가 참석해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배우고 수업 현장과 연관지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0월10일(목)은 2년차 교사도 함께 참여, 수업 영상을 공개하고 성찰하는 행성(행복한 수업성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신입생들도 신났던 입학설명회



2020학년 정시 전형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9월21일(토) 오전11시 있었습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날 짜보다 2주 연기되어 진행된 이번 입학설명회는 샘물과 기독교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뿐 아니라 특별히 학생들의 호응이 유독 큰 자리였는데, 성경

과부터 체육과까지 9개 학과가 체험부스를 만들어 학생들은 샘물 배움의 즐거움을, 학부모들은 샘물 교육의 다채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D 체험(과학), 다양한 소리 만들기(음악), 영어 철자 맞추기(영어), 그림카드 보고 스토리 만들기(국어) 등 다양한 체험이 이어져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학과부스가 북적거렸습니다.

샘물 숲속 바비큐장의 오후

샘물의 교정 뒷편에는 숲속 바비큐장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들이 바비큐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고기를 굽느라 분주했습니다. 7월5일(금) 8학년 아빠들로 시작해, 7월12일(금) 7학년과 10학년 엄마들이 자녀들과 바비큐파티를 진행했습니다. 7월6일(토)에는 특별히 샘물 신입생인 7학년 아빠들과 교장선생님과의 오붓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단풍 가득한 숲속의 바비큐가 더욱 기대됩니다.

교사 동정

- ▶ 생명을 살리는 교사기도회(생기)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샘물관 4층 안 대우홀 앞에서 열립니다.
- ▶ IT담당 장상현선생님(짱샘)이 9월7일(토) 제7회 국제3D 프린팅 대회의 비즈콘 대회(구동부문)에서 ‘간질환자용 카본 휠체어 테이블’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 2019년 여름방학과 가을학기를 맞아 통합지원 최아름선생님(말랑샘), 성경과 김주희선생님(사공샘), 사회과 유신실선생님(단비샘)과 이은지선생님(풍당샘)이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H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이야기 담았습니다(www.smca.or.kr)



기독교교육의 또 다른 시작 샘물 예비중등 이야기

“5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6학년 들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임과 미디어, 또래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입학상담 중에, 혹은 가족면접 중에 만났던 학부모들의 고백을 들으며 샘물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이 시기의 학생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통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초등학교는 곧 졸업할 6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 학교를 다니거나 홈스쿨 중인 학생 중에서 기독교학교를 빨리 경험하고 싶은 가정을 위해 새로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샘물의 예비중등 과정이 2014년 가을,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첫 해부터 예비중등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정선 선생님(동화샘)을 만나 예비중등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화샘의 예비중등 이야기

새로운 시도,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특별한 1년이에요.

예비중등은 부모님께도 학생들에게도 전에 다니던 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식 습득 위주인 학원이나 일반 학교와도 다르고,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중학교와도 다르니 예비중등 과정은 여유와 심, 회복의 기간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저것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고 아이들도 뭔가를 계획하고 실제 해 보는 시도를 대단히 즐겨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예비중등의 핵심입니다.

예비중등 이야기

“같은 연극 ‘흥부전’ 이지만 매기수 아이들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연극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실제 해 보는 시도 중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연극 흥부전이에요. 매 기수마다 대본을 아이들이 직접 쓰고 무대장치를 만들고 배경음악을 고르고 조명부터 음향까지 아이들이 모두 기획하고 저는 옆에서 자문만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 없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무척 좋아합니다.

흥부전은 소재일 뿐 아이들이 온전히 창작을 하기 때문에 기수별로 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도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놀부를 가해한 범인을 찾는 탐정 추리물이기도 하고 (이때 탐정 ‘코난’이 아니라 ‘고난’이 나와 사건을 해결합니다^^), 현대로 시간여행을 온

놀부와 흥부 형제가 편의점 알바에 봉어빵 장사를 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현대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해에는 흥부 놀부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풀어내는 코믹극을 만들기도 했어요. 놀부가 흥부를 구박하고 놀부 아내도 흥부를 구박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중간에 정지화면이 되면서 이 상황에 해당되는 사자성어 ‘유유상종’ 글자가 뜨고 연극을 보던 모든 학생들이 그 사자성어를 큰 소리로 따라해야 극이 다시 이어지는 연극도 있었어요. 연극이 아니라 인형극으로도 진행되기도 했지요. 미술시간에 미술선생님과 인형극에 사용되는 그림자 인형들을 다 만들고 오려서 준비했었습니다.



예비중등 이야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은사를 발견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탐구하고 싶은 영역의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나누는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요. 동물과 곤충에 관심 많았던 한 아이는 유정란을 부화시켜 집 베란다에서 닭으로 키웠는데(어머니가 대단하세요 π.π) 닭을 두 그룹으로 나눠 모이를 달리 하면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연구하기도 했어요. 미디어가 학습 능력과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주제로 탐구한 아이도 있었어요. (독서 후 수학문제 풀기, 미디어 시청 후 수학문제 풀기를 비교해 보았답니다^^) AI, 요리, 큐브, 패션 등 자신의 관심사에 관련된 연구와 발표를 진행하면서 관심사와 은사를 발견하고, 친구들이 내 프로젝트를 경청하고 ‘이렇게 해 보는 것 어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재미를 느끼고 성장합니다.



예비중등 이야기

“‘예비중등’ 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한 장면은..”

점심시간에 제가 우연히 교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있는 장면이 한 눈에 들어왔어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있는 모습이 예비중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기엔 친구를 선택할 수 없고 그래서 때론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한 친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시편 16:11)

우리 반 이름이 기쁨반이고 몇 년이 지나니 다른 분들이 예비중등을 기쁨이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양한 시도와 부딪힘 가운데 스스로 배

움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겨울학기에는 터키 난민 사역을 진행하시는 선교사님과 연이 닿아 터키 난민 아이들과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난민 학생들과 한 명씩 연결해 이메일로 펜팔도 하고 공기놀이나 윷놀이 같은 한국의 놀이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영어로 만들어서 보내고 성탄절에는 윷과 공기를 선물과 함께 터키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영상 제작부터 번역까지 모두 하는 거랍니다. 그 가운데 배움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겁니다. 많이 호응해주세요!

Students Story

“예비중등이 좋아요~!”

학생들이 말하는 예비중등

저에게 예비중등은 ‘또 다른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형식적으로 공부만 배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며 즐겁게 수업해 나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는 복상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라게 해주었고, 예비중등까지 포함해서 일주일마다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제 일주일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높은 학년이지만 샘물에서는 ‘예비중등’이라는 이름의 막내로 사랑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비중등 6기 아진

예비중등에서 했던 특별한 수업들이 생각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행 수업과 매주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은 공부에 지친 저희에게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미리 학교에 익숙해지고 나서 올라간 7학년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적응하느라 바쁠 동안 저희는 그 옆에서 학교에 대해 알려주며 오히려 친구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학교를 알려주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6학년까지 마치고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예비중등에 들어온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비중등 4기 (현 8학년) 지혜

예비중등은 말그대로 ‘예비’의 과정입니다. 먼저 샘물중고등학교에 입학해 샘물에 적응하며 국토순례, 마음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의 친분을 쌓으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예비중등은 친구들의 수가 적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해져 3년, 6년 함께 샘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중등 5기 (현 7학년) 지훈

공교육에 교육청 연구개발분과가 있다면, 샘물에는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

샘물중고등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육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과 수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과 샘물의 문화에 반영되고 스며들어 있는데요, **샘물의 교육철학과 가치가 각 교과 수업과 문화에 반영된다**는 것,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사일 텐데, 어떻게 하면 모든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고려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샘물에서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교사 역량강화와 교육과정개발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목표로 세워진 샘물교육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교육과정정책 연구, 교육 지원, 그리고 교원 연수까지, 공교육으로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소의 핵심 멤버^^ **한승대 선생님(국어과)**을 만나 그간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연구소의 활동 중 가장 어머어마한 프로젝트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소는 지난 4년간 샘물이 쌓아온 많은 일들을 연결하고 체계화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 두 가지가 학교 철학 정교화와 교육계획서 발간이었습니다.

교육계획서는 2014년에 발행한 바 있었으나 핵심가치와 샘물인상을 반영하여 구성 체계를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과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신조를 정의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학년의 교과 교육 내용을 학교철학을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간 각종 연구와 연수도 이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벨교의 수학교사이자 Acts 겸임교

수이신 김윤권 선생님을 모시고 2016년 2월과 8월에 총 3차례에 걸쳐 전체 교사 연수를 가졌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한 교과를 고민하고, 철학을 구체화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노종문 목사), 성육신 교육(박상진 교수), 성경적 교과설계(WCA) 등의 전체 교사 연수를 통해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2017년 1월에 11명의 교사가 WCA를 방문해 그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새 교육계획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각 학과의 신조와 중심 말씀, 핵심개념과 가치, 목표, 주요 특징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연구소가 집중하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요?

지난 3년 간은 성경적 교육과정 및 샘물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계획서 개편과 적용이 주요한 과제였다면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연

수를 진행하며 자기경영서 보완, IT교육 개발, 진로진학 연구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한 TFT가 학과장, 팀장 중심으로 구성돼 매월 만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물의 교사들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나요?

교사들의 성과를 오픈하고 학과별 학년별 소통과 연계를 통해 도전과 자극을 얻어 결국은 서로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년차 신입교사들의 형성(행복한 수업성찰)을 통해 수업을 서로 오픈하고 영상을 찍어 서로 리뷰합니다. 베테랑 선생님들의 수업을 관찰하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신입교사들을 위해 자신의 수업을 열어 보여줍니다. 수업을 찍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찍어서 나의 가

르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여기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부터 '나의 수업에서는 저런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는 저렇게 적극적이구나'까지, 이 과정 중에 다양한 도전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과 연합 연수와 학교간 연합 연수 등 협업 연수도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협동, 협력학습, 독서 수업, 느린학습자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리더십 교사들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학과에서 전략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학교의 철학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각 과별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국어과의 경우, 2015년 발표된 정부의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읽기 교육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한자 5급, 소설 작품 50편 읽기를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학년

별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생활팀, 교무팀 등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 세우기, 수업문화 세우기 등과 관련해 목표가 세워지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학과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성장이 목표입니다.



샘 물 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신임교사연수

매년 신입교사 대상 4-5일 진행. 샘물중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방향, 샘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공유

신행성(신임교사들의 행복한 수업성찰), 행성(행복한 수업성찰)

1~2년차 교사들을 위한 수업성찰과 나눔의 시간으로 9회(2년 간) 진행

T-day

학과별 학년팀별 교육활동을 나누고 교사들의 배움과 열매를 공유하고 마음을 모으는 Teacher's Day(연간 4회)

중간리더십연수

중간리더십 역할 이해, 팀별 학과별 전략 계획 논의(연 2회)

전체 교직원 연수

성경적세계관, 핵심가치, 수업문화 등 매년 집중해야 할 과제 선정해 논의, 교육(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연 3회, 7일 간 진행)

신학연수과정

성경적 세계관 수업 연구와 영성 훈련을 위한 신학과정 지원 (2018년 가을학기부터 교직원 9명 지원)

샘 물 의 교육과정 개발사례

성교육 교육과정개발 2016~2017 연구과제(성경과 협업)

2019년 현재 전학년 성경적 세계관 수업 시간에 적용

샘물 수업(예술교과통합 인성수업) 공동 연구 2016~2017 연구과제(음악과·미술과·연극수업 협업)

2019년 현재 8학년 통합 수업에 적용

진로 수업 2016~2017 연구과제(성경과·진로팀 협업)

2019 현재 가을컨퍼런스 및 10학년 선택 수업에 적용

미디어 사용 방향성 연구 2017 연구과제(IT팀·성경과·학년팀 협업)

7학년 미디어 디톡스 ▶ 단절에서 절제 ▶ 소비에서 창조로의 방향성을 결정. IT수업 및 IT를 위한 오프라인 수업 논의

마음발 수업(학교 철학 수업) 2017~2018 연구과제(성경과 협업)

2019년 현재 7학년 성경적 세계관 수업 시간에 적용

교육계획서 개발 2016~2018 연구과제(전 학과 협업)

성경적 교육과정 및 샘물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계획서 발간, 전 교과가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



과학 이경순(은사)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
렸으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비
전에 마음을 잘 맞추어 함께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로 세
워져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학 김화경(하울)

저에게 넘치도록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이 학생들에게 흘러가서
학생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
험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영어 김보예(소울)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
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소울을
별칭으로 정했습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매일 기쁨으로 아이들을 만나
길 소원합니다.



통합지원 진솔(살롬)

행복한 교사가 되어, 그 행복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
다. 행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성
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수학 박단비(새날)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소
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학
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
되길 소원합니다.



통합지원 장우영(든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하고 충성
된 일꾼으로 세워져가고 싶습
니다. 작은 아이를 부르시고 사
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
고 싶습니다.



사회 윤석기(샘)

샘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들이
찾는 작은 나무, 그 가지에 깃들
어 쉬고 웃을 수 있는 나무가 되
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문영준(달)

건강하고 이상적인 학교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 감사합니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을 기대하며 샘물의 차오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이진명(로아)

건강한 기독교교육의 장에서 교사
로 섬기며 배우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
님 사랑이 드러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학 이형규(루크)

인생 제 2장인 샘물학교에서 영
성, 인성, 그리고 실력을 갖춘
선한 청지기를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음악 박은혜(칸타)

희생과 사랑의 뿌리가 견고히
잘 세워져 그 사랑이 아이들에
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음악
이라는 매개로 아이들과 소통
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지원본부 우기정(라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샘물로 왔습니
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샘 물 의 신 임 교 사

2019년 샘물학교의 가족이 된
신임교사들의 소망에 덧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라보는 우리 손주들의 샘물

매년 여름학기, 샘물의 학부모들은 '샘물, 수업을 열다' 참관수업을 통해 자녀의 수업 환경과 샘물의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합니다. 5월 31일(금) 열린 올해 '샘물, 수업을 열다'에서는 특별히 네 분의 할아버님, 할머니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샘보 학생기자들이 만나보았습니다.

Interview 1

**고헌식 할아버님,
김정분 할머니님**
(7기 고병권 조부모님)

Q. 어떻게 기독교교육과 샘물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이천양정여자중고등학교'라는 기독교학교 설립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기독교교육의 틀 안에서 자랐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샘물학교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손자가 받게 될 기독교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Q. '샘물, 수업을 열다'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할머니 저희 부부가 교사 출신이에요. 가장 먼저는 전반적인 교육의 틀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했고 제가 미션스쿨에서 30년간 음악교사로 일했기에 음악 수업 또한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국어교사였는데, 학교에서 교감, 교장, 장학사 역할도 맡으면서 교사들 수업 참관하는 일을 했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수업 참관을 하게 되었네요^^

Q.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과학과 성경적 세계관, 국어, 연극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평소에도 병권이 성적 통지표를 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에 놀랐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1학년 수업을 선생님 두 분이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세계관이라는 게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기 쉬운데, 두 분이서 수업을 하시니 멋지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더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며 샘물에 보내길 잘했다 생각했죠

샘물 학생들은 참 자유롭게 자기 표현이 분명하면서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Q.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자의 기독교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 우리 손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독교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때 좋은 결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서 교회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단기봉사에 다녀와 섬김을 기뻐하는 모습, 친구들에게 더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며 '샘물에 보내길 잘했다!' 생각했죠.

할머니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가진 것이 많지만 불행한 이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굴고, 가진 것이 많다고 과시하며 살다 보니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고 나이 들고 보니 다 헛된 일이더라고요. 반면에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니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삶이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이예요.

Q. 두 분께 샘물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할아버지 삶의 과정을 선한 방향으로 개척하는 힘을 주는 학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할머니 샘물 학생들은 참 자유롭게 자기표현이 분명하면서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참 멋있구나,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 주는 학교입니다.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주는 학교”

11기 샘보 공유빈 기자



Interview 2

**류호민 할아버님,
이정희 할머니**
(9기 강원익, 10기 강예원 조부모님)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Q. 어떻게 기독교 교육과 샘물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할아버지 제가 대구에 있는 기독교학교 출신이어서 기독교교육에 관심이 있었어요.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시점에 제가 분당과 용인 지역의 학교를 찾아보면서 샘물을 알게 되었고 교육환경, 선생님들의 열의 등 알아보면 볼수록 이 정도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애들 부모에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Q.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할머니 저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법한 다양한 내용을 기독교 뿌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수업내용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많이 인상 깊었어요. 수업시간에 조는 아이들을 깨우는 모습, 떠드는 아이를 타이르며 조용히 시키는 모습 등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인상 깊고 보기 좋았습니다.

Q. '샘물, 수업을 열다' 참관 후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할머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간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서만 수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니 수업 능률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Q. 손자 손녀가 샘물학교에 오고난 뒤에 바뀐 점이 있다면?

할머니 가장 좋아진 점은 오빠와 동생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예요.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된 것 같아 감사해요.

할아버지 어른을 대할 때나 친구들을 대할 때 모습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들을 다 샘물에서 배워온 것 아닐까요? (웃음)

Q. 두 분께 자녀들의 기독교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따라 인격을 형성하고 신앙심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Q6. 주변에 샘물중고등학교를 한 마디로 소개한다면?

할아버지 세상의 교육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교육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할머니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는 학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는 학교 ”

11기 **샘보** 박소연 기자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와 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앞으로의 남은 학교생활을 더 감사하며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소연 기자

Interview review

인터뷰 후기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축복 받은 학생들이예요.”라는 말씀이예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자주 잊고 살거든요. 샘물학교에 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번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공유빈 기자



졸업생 이야기

4기 박은별
수원여자대 미용예술과 1학년

“제 이야기는 소식지에 실릴 만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데...” 대화 내내 은별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샘물과 기독교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번 소식지에 은별이 이야기를 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2학년 팀장님 김문정 선생님의 추천이 컸습니다. 은별이가 올해 재수해서 자신이 원하던 메이크업 관련 학과에 입학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다며, “은별이가 참 힘들게 샘물을 다녔는데 이렇게 인도하심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샘물에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감과 실패감, 좌절을 겪습니다. 혹시 지금 샘물에서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겪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은별 선배의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힘들었던 시간, 떠나고 싶었던 샘물

저는 학교를 싫어했어요. 공동체모임도 싫고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단체생활을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어요. 조퇴, 휴학을 반복했고 상담과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 번 자퇴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부모님조차 이럴 바에는 그냥 자퇴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잡아주셔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셀쌤, 풍당쌤, 그리고 중학교때부터의 모든 담임선생님들..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버텼던 것 같아요.

졸업 이후,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중학교때부터 에버랜드 야외 공연을 보고 분장에 관심을 갖으며 고등학교 때 특수분장학원도 다니면서 국가고시도 패스했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고 대학을 가려니 학원도 어디도 기말 곳이 없어 샘물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렸죠. 어느 과가 괜찮은지 다 알아봐주시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검정

고시 전형으로 입학장학금 받고 원하는 학과에 갔습니다.

은별이에게 샘물은

저에게 샘물은 샘물 선생님들 그 자체예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저를 붙들어 주신 것도, 대학 가도록 길을 보여주신 것도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결국 남의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인생처럼 챙겨주시고 신경써 주시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주시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샘물만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공동체를 앞으로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샘물에서의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해 주고 싶은 말

힘들어하던 과거의 저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많아서 힘들었던 거라고, 상황 다했다면 다 하니깐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힘든 상황이 되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저도 샘물에서 알게 모르게 얻은 힘으로 버티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다른 후배들은 저보다 충분히 더 잘 해낼 거예요.

수원여자대 미용예술과 1학년 4기 박은별



샘물학교(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초등학교, 더샘물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동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장학금과 새로운 10년을 위한 샘물 전략 과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샘물의 동역자(후원자)

2019월 1월~9월

- | | | | | | | | | | | | | | | |
|------|------|-----|------|------|-----|-----|-----|-----|-----|-----|-----|-----|-----|-----|
| 강남규 | 강매순 | 강명숙 | 강미혜 | 강민구 | 강보라 | 강수길 | 강윤석 | 강이순 | 강인구 | 강준우 | 강지웅 | 강진명 | 강태준 | 강현선 |
| 강혜원 | 경규태 | 계영희 | 고경민 | 고세현 | 고영수 | 고영은 | 고지현 | 고진미 | 고차원 | 공두식 | 공무식 | 공미영 | 공성원 | 공정윤 |
| 곽동명 | 곽소영 | 곽윤주 | 곽준우 | 구명례 | 구영희 | 구윤경 | 구현희 | 국영은 | 권다은 | 권다해 | 권문영 | 권미경 | 권민진 | 권민창 |
| 권선희 | 권세혁 | 권수연 | 권영상 | 권영숙 | 권영현 | 권오덕 | 권형임 | 기호진 | 김명숙 | 김갑중 | 김강호 | 김경숙 | 김경자 | 김경희 |
| 김계수 | 김광섭 | 김교래 | 김규남 | 김규동 | 김금희 | 김기순 | 김길호 | 김나경 | 김낙교 | 김난화 | 김남성 | 김남경 | 김대용 | 김대진 |
| 김도겸 | 김동규 | 김동연 | 김동환 | 김두환 | 김명신 | 김명제 | 김명중 | 김모라 | 김모은 | 김무성 | 김문정 | 김미경 | 김미라 | 김미란 |
| 김미성 | 김미숙 | 김미양 | 김민경 | 김민규 | 김민정 | 김병근 | 김병엽 | 김병일 | 김보영 | 김보경 | 김보연 | 김복기 | 김상미 | 김상학 |
| 김성훈 | 김영신 | 김영종 | 김영준 | 김영환 | 김예성 | 김용수 | 김용우 | 김용철 | 김용희 | 김원기 | 김유철 | 김연식 | 김연식 | 김영미 |
| 김은정 | 김은주 | 김은혜 | 김은희 | 김인배 | 김인하 | 김일부 | 김장희 | 김재문 | 김정미 | 김정민 | 김정원 | 김정화 | 김종대 | 김종두 |
| 김종란 | 김종민 | 김종범 | 김주연 | 김주일 | 김주영 | 김주용 | 김주일 | 김주희 | 김지영 | 김지웅 | 김지윤 | 김지은 | 김진관 | 김진승 |
| 김진영 | 김진주 | 김찬원 | 김창섭 | 김창연 | 김창훈 | 김철홍 | 김준애 | 김태동 | 김태수 | 김태영 | 김태형 | 김태희 | 김푸름 | 김하영 |
| 김학미 | 김한성 | 김해정 | 김현경 | 김현규 | 김현미 | 김현진 | 김현진 | 김현호 | 김혜련 | 김혜숙 | 김혜진 | 김호연 | 김호일 | 김호일 |
| 김호중 | 김홍중 | 김효성 | 김효정 | 김후승 | 김희연 | 나미일 | 나종주 | 나종천 | 나한나 | 남궁선 | 남영훈 | 남상숙 | 남영지 | 남형무 |
| 노근식 | 노대영 | 노명균 | 노은진 | 노현훈 | 도지현 | 류혜란 | 류혜연 | 맹경희 | 맹영은 | 무기명 | 문나경 | 문선영 | 문영애 | 문은혜 |
| 문진경 | 문희진 | 민미숙 | 민혜경 | 박가영 | 박경란 | 박경수 | 박경아 | 박경옥 | 박경진 | 박경희 | 박고은 | 박금조 | 박기호 | 박문서 |
| 박미연 | 박미옥 | 박미정 | 박민서 | 박선경 | 박선미 | 박선영 | 박선희 | 박성만 | 박성호 | 박세현 | 박수연 | 박순달 | 박아름 | 박영숙 |
| 박영진 | 박유순 | 박유준 | 박윤정 | 박은조 | 박은진 | 박인성 | 박인혜 | 박일두 | 박재걸 | 박재현 | 박정규 | 박정석 | 박조영 | 박종준 |
| 박주연 | 박주원 | 박준원 | 박지윤 | 박진수 | 박진현 | 박재은 | 박철호 | 박현민 | 박현자 | 박현주 | 박현희 | 박홍준 | 박 훈 | 박홍순 |
| 박희숙 | 방지애 | 방태혁 | 배선양 | 배신규 | 배외수 | 배종희 | 배진현 | 배태랑 | 배형준 | 백정태 | 백창현 | 백향숙 | 변은경 | 봉준균 |
| 부숙진 | 상희정 | 서광호 | 서길원 | 서명관 | 서명화 | 서민석 | 서상원 | 서영주 | 서은주 | 서정훈 | 서재환 | 서홍덕 | 선애영 | 선연자 |
| 선우성 | 선지용 | 성은재 | 성홍모 | 소재목 | 소지훈 | 손태원 | 손정희 | 송도윤 | 송병욱 | 송영석 | 송 은 | 송재형 | 송정엽 | 송현창 |
| 송혜연 | 셀파비즈 | 신경실 | 신기영 | 신동호 | 신명서 | 신원선 | 신익희 | 신준현 | 신진아 | 신철균 | 신현주 | 신혜정 | 신홍철 | 신효섭 |
| 심다혜 | 심재경 | 심정미 | 심준용 | 심현주 | 심혜순 | 안미여 | 안민식 | 안병기 | 안병미 | 안병숙 | 안소요 | 안소호 | 안신자 | 안신자 |
| 안윤수 | 안은경 | 안은선 | 안현기 | 양간자 | 양석현 | 양 연 | 양재석 | 양재원 | 양태민 | 양희곤 | 엄종석 | 엄주미 | 여경주 | 여수호 |
| 여진구 | 오경희 | 오미영 | 오베드로 | 오성영 | 오중석 | 오중효 | 오진숙 | 오창석 | 오혜정 | 왕동식 | 왕훈식 | 우광재 | 우기정 | 우정길 |
| 우제건 | 유영원 | 유기남 | 유수경 | 유숙인 | 유승민 | 유시용 | 유신실 | 유은목 | 유영석 | 유예동 | 유정희 | 유종순 | 유현숙 | 유현숙 |
| 유현진 | 유훈상 | 윤경아 | 윤만선 | 윤상미 | 윤상범 | 윤소희 | 윤연화 | 윤영선 | 윤용준 | 윤은희 | 윤재정 | 윤정성 | 윤정희 | 윤정희 |
| 윤주애 | 윤희상 | 윤희진 | 이거연 | 이경림 | 이경미 | 이경민 | 이경희 | 이중현 | 이중호 | 이주연 | 이주은 | 이주하 | 이주희 | 이기진 |
| 이다니엘 | 이대성 | 이돈구 | 이동길 | 이동선 | 이동현 | 이동희 | 이득주 | 이만호 | 이명란 | 이명현 | 이문규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란 |
| 이미래 | 이미선 | 이미정 | 이미화 | 이미희 | 이민영 | 이바인 | 이병욱 | 이보구 | 이복남 | 이복임 | 이봉수 | 이삼범 | 이상구 | 이상균 |
| 이상복 | 이상호 | 이서영 | 이선경 | 이선영 | 이선희 | 이성숙 | 이성환 | 이송운 | 이수정 | 이승기 | 이연화 | 이영신 | 이영자 | 이영주 |
| 이영희 | 이육진 | 이완주 | 이외숙 | 이용덕 | 이용우 | 이원준 | 이원희 | 이원희 | 이주연 | 이주은 | 이주하 | 이주희 | 이준 | 이준석 |
| 이재용 | 이재원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민 | 이정옥 | 이정환 | 이중현 | 이중호 | 이주연 | 이주은 | 이주하 | 이주희 | 이준 | 이준석 |
| 이준형 | 이지혜 | 이지환 | 이찬영 | 이찬형 | 이창규 | 이창길 | 이창우 | 이재복 | 이춘남 | 이해든 | 이혁중 | 이혁진 | 이현성 | 이현옥 |
| 이현주 | 이형순 | 이혜숙 | 이혜원 | 이호섭 | 이호익 | 이호일 | 이화평 | 이효숙 | 이효영 | 이 훈 | 이훈재 | 임경아 | 임근찬 | 임미순 |
| 임상희 | 임선희 | 임성도 | 임성윤 | 임수연 | 임수진 | 임영호 | 임윤정 | 임지순 | 임지혜 | 임창일 | 임재명 | 임재명 | 임혜순 | 임혜원 |
| 임혜정 | 임효정 | 장경주 | 장경호 | 장금성 | 장기홍 | 장민호 | 장상현 | 장원희 | 장철희 | 장현정 | 장혜련 | 장혜순 | 장희성 | 전동찬 |
| 전만수 | 전미희 | 전민영 | 전병철 | 전영신 | 전용주 | 전유진 | 전유택 | 전인성 | 전인숙 | 전태남 | 전현수 | 전 홍 | 정고은 | 정근창 |
| 정대근 | 정명호 | 정미정 | 정병태 | 정봉진 | 정사랑 | 정성일 | 정성훈 | 정세영 | 정수연 | 정수영 | 정승우 | 정영갑 | 정영선 | 정영진 |
| 정영환 | 정우진 | 정우철 | 정윤석 | 정윤주 | 정은우 | 정은영 | 정은자 | 정일영 | 정재영 | 정재희 | 정조윤 | 정주영 | 정준혁 | 정진창 |
| 정창도 | 정태열 | 정태영 | 정현순 | 정형재 | 정혜옥 | 정호건 | 정홍미 | 정희재 | 정창희 | 조관희 | 조기주 | 조대섭 | 조래중 | 조봉경 |
| 조성환 | 조성훈 | 조수영 | 조영구 | 조영란 | 조영숙 | 조영은 | 조윤정 | 조윤희 | 조재신 | 조제희 | 조진영 | 조창현 | 조태희 | 조태희 |
| 조현국 | 조현재 | 조현철 | 주유진 | 진주빌딩 | 차성근 | 차이준 | 차태호 | 차희원 | 채경현 | 천수환 | 천초록 | 최 규 | 최길영 | 최나리 |
| 최민후 | 최범진 | 최병도 | 최상규 | 최성욱 | 최성현 | 최소명 | 최수연 | 최승재 | 최아영 | 최옥규 | 최옥남 | 최완형 | 최용준 | 최원경 |
| 최윤선 | 최은경 | 최은실 | 최정민 | 최정순 | 최종국 | 최주원 | 최지형 | 최정록 | 최현숙 | 최현경 | 최현혜 | 최혜진 | 추영혜 | 추종호 |
| 편혜원 | 평주연 | 표경우 | 하대관 | 하현영 | 한경은 | 한동수 | 한미아 | 한상수 | 한상현 | 한선이 | 한세현 | 한승대 | 한지영 | 한채현 |
| 함은희 | 함희영 | 허윤정 | 허유진 | 허지정 | 허정아 | 허진욱 | 홍강의 | 홍기철 | 홍덕기 | 홍명길 | 홍순철 | 홍은숙 | 홍정기 | 황영수 |
| 황의경 | 황준구 | 황지영 | 황지혜 | 황철이 | 황희주 | | | | | | | | | |

(주)미담에프엠 (주)샵캐스트 (주)서우타이밍 (주)와이씨디자인 (주)이레테크 (주)커넥트픽처스 피닉스시스템 다사랑교회
홍덕향상교회 더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우리들교회 열린하늘문교회 은혜순교회 인베스티지엔스 남서물비전침례교회



샘물배움공동체 기도제목

- 01**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랑이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02** 학부모와 교직원의 기도와 섬김으로, 샘물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목적 있는 일상을 살아감으로, '섬기는 예수제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 03**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2학년과 졸업생들에게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 04** 샘물학교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샘물차오름캠페인을 통하여, 새로운 10년을 위한 샘물의 사명, "샘물, 넘쳐흘러서 세상을 적시다"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하소서.
- 05**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더샘물학교와 해외선교캠퍼스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기독교학교운동 확산의 비전을 이 땅과 세상에 이루어가게 하소서.

샘물학교 주/요/일/정

1 더샘물학교 입학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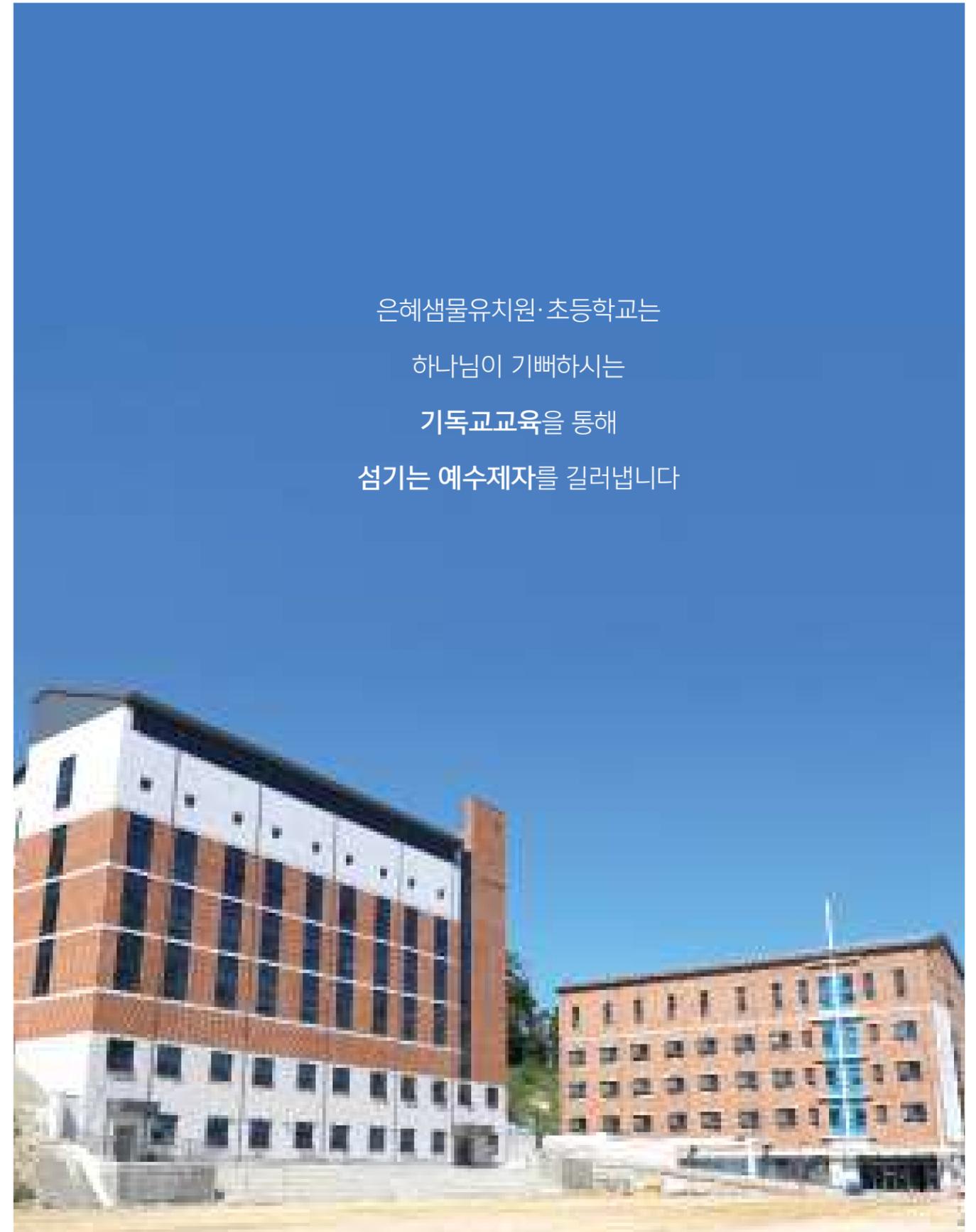
대상 초등 초1~5, 중등 중1~2(2019년 기준)
일시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더샘물학교(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68, 베라프라자 3층)
문의 031-372-9636, www.tsmca.or.kr

2 대학 진학설명회

일시 2019년 11월 26(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샘물관 4층 안대옥홀

3 샘물문화축제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샘물관 4층 안대옥홀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교육을 통해
섬기는 예수제자를 길러냅니다

세계를 품는 아이들, 세품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세품아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도록 돕는 선교훈련과 함께 전쟁, 기아, 난민 등 세계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세품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세품아

국내 세품아



올 1월에 5~6학년 2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세품아에서는 1주간 현지교회 및 학교 봉사, 빈민가 방문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후 방콕 그레이스국제학교에서 3주간 이동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5학년 학생들 13명과 4명의 교사가 12월 31일부터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유니언국제학교에서 3주간 영어와 영성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1주간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역교회, 학교, 그리고 빈민가를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제와 봉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더 자라게 될 우리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 찾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3일, 4학년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양선교사의 묘지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배재학당 등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2박3일동안 광주, 순천 등에 있는 순교지와 선교사 기념관 등을 방문하며 우리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순교하신 선교사와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 밖에서

OUT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과 지역사회 현장 곳곳을 탐구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갖는 풍부한 경험은 유아들의 사고 확장을 돕습니다. 도서관, 소방서, 우리 동네 등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숲을 체험하며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봄여름학기 은샘유치원은

은혜샘물유치원은 모든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이며 모든 교육적 계획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각 교과 영역은 기독교세계관으로 통합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와 하우톡 절기교육과 함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자라 갑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연령이 함께 하는 마을프로젝트와 유치원 내 연령 통합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풋살장 오픈

은혜샘물초등학교에 야외체육시설인 풋살장이 생겼습니다. 지난 7월3일(수) 은혜샘물초등학교의 풋살장 오픈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풋살장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샘물의 발전과제 중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획되었고 샘물차오름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후원 기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은혜관 뒷편 주차장 부지 중 약 324제곱미터(약 98평) 규모로 인조잔디, 풋살 골대, 농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실 안에서

IN



유아들의 연령별 특성에 맞춰 생활 주제에 따른 흥미로운 수업, 반별 자율 활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은샘유치원 어린이들은 유치원이 재미난 곳,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들에게 정서적 유대감, 세대 간 나눔을 통한 지혜 습득을 지향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을 맞이하여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들 이야기



만화주제가만 부르던 서준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귀한 고백과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속 시간에 배운 찬양을 읊조리고 자기는 계속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귀염 어린 표현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준이가 자라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에서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학년 은혜반 류서준



은혜샘물학교를 생각하면 예수마음이 떠오릅니다. 저희 가정은 은혜샘물에 들어와 생활하며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미디어로부터 자유하고 학교를 마친 후 마을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며 할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매일 찬양을 하며 도란도란 일상을 나누는 남매를 보니 감사하고 아이들이 매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에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5학년 은혜반 이예진, 3학년 샘물반 이예준



외국주재원이었던 아빠로 인해 유치원때부터 2학년까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때 귀국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샘물학교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등교 첫날 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사랑 많으신 선생님들과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친구들 덕분에 학교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학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모두 기도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3학년 은혜반 김주은, 샘물반 김예나

마을은 단순히 마을모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마을 형님들과 동생들을 마주칠 때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경충경충 뛰며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마을원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정(情) 이상의 그 무엇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을의 리더(Leader)로서 마을지기로 섬기는 6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때론 장난꾸러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마을모임에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동생들을 끌어안아주고 든직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자라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동체를 몸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음식

‘음식’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음식과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그 조건을 알아본 후, 마을원이 한데 모여 점심 식사를 만들고 서로 나누어 먹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재료를 펼쳐놓고 한껏 기대감에 부푼 얼굴, 선생님과 마을 형님들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물조물 음식을 만들던 손, 서로가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야무지게 먹던 모습, 먹고 난 자리를 치우느라 끙끙 앓던 소리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해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운동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림보, 과자 따먹기, 술래잡기, 퀴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물놀이 등 마을지기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통해 서로 어울리며 신나게 놀면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은 두 마을이 연합한 미니 올림픽의 못다리밟기였습니다. 못다리밟기는 여러 명이 허리를 숙여 기다란 길을 만들면 그 위로 한 학생이 걸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유치원 동생이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명의 힘센 형님들이 동생을 부축해주고, 나머지 20명 가까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픔도 참아가며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뛰었어요” ‘음식’과 ‘운동’ 주제로 한 2019 봄여름학기 마을프로젝트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단연 ‘마을’입니다. 마을은 유치원 5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전 연령 아이들이 8개의 마을로 나뉘어 한 학기 동안 같은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은샘유치원초등학교만의 고유의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1학기 마을모임에서는 ‘공동체성’을 목표로 음식과 운동이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즐거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Prayer

기도회 시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축복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세상 그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배움과 성장을 주었습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은 교사들에게도 큰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은샘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똑딱똑딱 텐트치기
똑딱똑딱 아빠가 텐트를 설치하실 때 나도 함께 거들었어요



기도회
아빠 품에 안겨서 기도소리를 들으니 나를 향한 아빠의 큰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빠랑 두벅두벅
아빠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다보니, 아빠의 어린 시절과 엄마랑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빠랑 소곤소곤
조용해진 캠핑장 텐트에서 아빠와 나란히 누워 엄마가 써주신 편지를 함께 읽어보니 집에 계신 엄마에게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랑 야식타임
레크레이션과 기도회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마시멜로와 옥수수, 닭꼬치를 굽고 라면도 끓여먹었어요



아빠랑 놀이시간(레크레이션)
아빠와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하며, 아빠도 나처럼 강한 승부욕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랑 캠프



은혜샘물초등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아빠와 함께 학교운동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아빠랑 캠프'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6월5~6일 1박 2일 동안 4학년 학생들과 아버지 27가정이 '아빠랑 캠프'에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날은 아버지들께서 바쁜 일상을 잠시 미뤄놓고 학교로 나와 아이들과 똑딱똑딱 텐트도 만들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정이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더 이해하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 July

풋살장 오픈

우리 교복처럼 초록초록 사랑스런 풋살장!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때 마다, 주신 사랑 감사해요~!



마을의 날

시끌시끌, 울퉁불퉁, 하하 호호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이 참 좋아요!

6 June



학교열림

오늘 교실에 아빠, 엄마가 오셨어요~ 자꾸 웃음이 나오. 좋아서~!

아빠랑 캠프



아빠가 해주시는 밥 맛있어요~! 달이랑 별 보며 아빠 옆에서 쿨쿨 잠드는 밤, 꼭 기억할게요.

봄소풍

드디어 소풍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친구들과 함께 온 몸으로 탐험하고 누리는 오늘! 특별히 감사해요.



April 4

고난주간 절기교육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매일매일 가족, 친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보는 봄여름 학기

February 2

입학식

은혜샘물초등학교, 은혜샘물유치원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두근두근 마음이 기대로 바뀌어요.

